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 부릅니다. 지상명령은 땅에서 명령했다는 말이 아니고 최고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오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열한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2천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삶이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고 유일한 구주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 끝까지 전하라고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멸망 받는 걸 싫어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느냐 하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간절하시겠느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되는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분은 둘이 아니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이 이런데, 희랍어 원어에는 헤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 길이요 나만 진리요 나만 생명이니라. 예수님 외에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 진리도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무슨 뜻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모세에게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다윗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면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말라기에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먼저 오는 자가 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함은 죄악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들고 어떻게 부활하는지 다 예언됐어요. 바로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가 나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는 길이 있으면 왜 사도들은 전도하면서 순교했을까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길이라고 전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감옥에 가

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볼 때 기분 나쁜 거죠. 절에 다니고 무슬림 하고 무당해도 좋다면 괜찮은데 안 된다. 길이 없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만 왜 기독교만 독선으로 너희만 구원받으라 하나,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구원이라서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이 보낸 중보자는 한 분이 유일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죠. 아버지 한 분은 독선이 아닙니다. 유일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심 같이 구주도 유일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로마의 고급 장교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니까 아 이분이면 내 하인이 낫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으니 고쳐주소서 하니깐 예수님이 가자 이러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하면 됩니다. 나도 하인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바쁘신데 복음 전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자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이 백부장과 그 하인이 예수 믿고 그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옴바에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했더니 일가친척을 모아놓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일가친척까지 다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구주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강조입니다. 너무너무 복음이 자랑스럽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 사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길, 하늘에 소망을 주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이빨 갈고 잡아가고 그냥 때리고 고난주고 감옥에 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딱 부활하여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에 무슨 능력이 죄에서 해방하는 능력이 있고, 사탄에서 해방하는 능력이 있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천국 가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 복 받은 게 예수 믿은 거고, 최고 자랑스러운 게 예수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교가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표어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니다. 둘째,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의 빛을 쬐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이 그렇게 피 흘리고 고난 받고, 시대 시대마다 전도자들이 핍박받지 않는 전도자가 없습니다. 고난 받고 감옥 가고 굶주리고 죽고, 그들이 그렇게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복음에 빛을 쬐 자들이에요. **로마서 1장 13절 - 14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다.**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 빛진 마음으로 주여 나는 복음을 받았는데 이들이 복음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갇아야 되는데 나는 빛진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의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관심 없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지옥 가든지 말든지 고난 받든지 말든지 마귀 종이 되든지 말든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복음에 빛진 자입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의 빛을 쬐습니다. 조선시대에 얼마나 가난하고, 피폐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때에 미국 아주 유명한 엘리트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지지하고 편하게 살고 유쾌하게 살 수 있는 걸 다 버리고 한국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고난 받지, 죽지, 핍박받지, 불편하지.. 그들의 기득권, 편리함, 안일함을 다 포기하고 와서 고난 받고 힘들고 말이 통합니까, 환경이 통합니까, 하나도 안 되는데 오직 이 조선이라는 곳에 복음 전하기에 오셔서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그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잘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대사는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빼버리면 근대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와서 학교를 지어줬었죠. 병원을 지어줬죠. 구제했죠. 우리는 선교사들의 뿌리는 그 수고와 피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날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다 잊어먹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나쁜 거죠 우리는 복음의 선교에 빛을 쬐 자들이기 때문에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선교는 삶의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로 살아갑니까? 밥 먹기 위해서 삽니까? 집 살려고 삽니까? 여행 다니려고 삽니까? 무슨 권세를 가지려고 삽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물론 정약 결혼도 있었지만 여자 3천명이나 거느렸습니다. 아마 솔로몬 이전 이후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호화로운 사람도 없고 권세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해보고 그가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보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권세, 명예, 쾌락을 위해서 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고백합니다. 헛살았구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보람입니다. 성도들의 기

도와 헌금과 관심과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쓰임 받는 교회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해요. 땅의 모든 수고는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수고는 영원히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고 섬겨야 하는 바울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누가 보이는 걸 바라겠느냐 영원한 걸 바라보지 지혜로운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쫓지 마시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중에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돈, 명예,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아내를 뺏길 뻔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깐 거기서 바로를 치고 견져내서 재산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윗을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 합니까?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예수 영접하는 자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첫째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간절히 우리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둘째로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세요. 선교를 하세요. 설교하는 것과 전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영적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든 족속 만민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놀랍고 어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걸 하더라도 다 두고 갑니다. 돈도,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여러분 집도 두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한 그거 가져갑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 너무 슬퍼도 말고 너무 세상 것 때문에 기뻐도 말고 그 다음에 원수도 지지 말고 안타까워도 하지 말고 우리는 금방 금방 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성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